

죽은 사람의 마음 이론: 죽은 사람의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가?

김 의 선 김 성 호[†]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현대 신경과학은 인간의 마음이 신체기관인 뇌 활동의 산물이며, 뇌의 활동이 멈추면 마음의 작용도 함께 정지한다는 심신 일원론을 지지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일반인은 여전히 일원론적 입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영속성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죽은 사람의 마음이 단순히 작동정지하거나 약화된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과 구별되는,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초월하는 마음으로 간주되는지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은 주인공이 교통사고 후 사망하거나, 생존하거나, 또는 뇌사상태가 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은 뒤, 각 상태의 주인공이 보유한 '일반적 정신능력'과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수준을 평정하였다. 연구 결과, 주인공이 사망한 조건에서는 주인공의 일반적 정신능력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도 높다고 응답하는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나, 생존 조건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에게 기대되는 정신능력의 속성이 서로 달라서, 죽은 사람이 소유한 높은 일반 정신능력은 초월적인 능력을 함축함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참가자의 종교적 믿음 또한 사망한 사람의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심신문제, 심신이원론, 마음지각, 죽은 사람의 마음

[†] 교신저자: 김성호,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연구분야: 인지 및 지각 심리학
E-mail: sunghokim@ewha.ac.kr

몸과 마음간의 관계를 다루는 심신문제(mind-body problem)는 철학, 심리학, 신경과학의 학제적 연구 주제이다. 현대 과학은 인간의 마음과 의식이 뇌의 생물학적 활동의 산물이며, 뇌의 활동이 멈추는 생물학적 죽음과 함께 마음의 작용도 정지한다는 심신 일원론적 입장을 지지한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당수는 여전히 심신 이원론자로서(Demertzi et al., 2009; Musolino, 2015), 마음(혹은 영혼)은 물리적 신체와 독립적이며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믿음을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견지하고 있다.¹⁾ 신체의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도 마음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죽은 자의 마음은 신체에 물리적으로 속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과 다른 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인이 갖고 있는 '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정상인의 마음'에 대한 관념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타고난 이원론자로서 인간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은 생애 초기부터 세계와 행위자를 이원론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교육이나 종교, 문화의 영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이 성인들보다 더 이원론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원론적인 성향이 상당부분 진화를 통해 형성된 생득적 본능임을 시사한다. 즉, 인간은 타고난 이원론자(natural-born dualists)인 셈이다(Bloom, 2004; Kelemen, 2004). 한 살 미만의 아기들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보고 마치 인간과 같은 행위자의 움직임처럼 해석하고, 그 행동의 의도를 읽어내고, 그 행동의 도덕적 정당성도 인식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Csibra, Bíró, Koós & Gergely, 2003; Hamlin, Wynn & Bloom, 2007; Scholl & Tremoulet, 2000). 또한 Kuhlmeier, Bloom과 Wynn(2004)에 따르면, 생후 5개월의 영아들조차도 마음을 가진 행위자는 물리적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 믿음에서 잘 드러나는 이원론은 일반적으로 마음(혹은 영혼)이 신체와 독립적인 비물질적(immaterial) 실체로서 존재하며, 신체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두 가지 믿음으로 표현된다.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 영속성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1) 종교적 믿음이나 문화에 따라 (특히 사후 세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마음과 구별되는 대상으로서 혹은 마음의 일부로서 영혼의 존재를 가정하곤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과 영혼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혹은 암묵적으로는 마음 개념의 틀 안에서만 다루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일반적 정신 능력(감정, 판단, 의식, 기억 등)이나 정보 업데이트 능력은 통상 마음의 틀 안에서 다루지는 인지/정서 능력의 하위 속성들이다. 둘째, 영혼 개념은 조작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속성이나 능력이 영혼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혼과 마음을 명시적으로 구분할 경우, 연구 참여자가 과도하게 종교적 기준에 따라 반응하는 편향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었다.

를 갖도록 유도하는 적응적 기능을 한다(Vail, Rothschild, Weise, Solomon, Pyszczynski, & Greenberg, 2010). 한편, 사후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관념이 없는 무신론자들도 때로는 비물질적 존재로서 마음의 영속성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Heflick & Goldenberg, 2012), 과학적 지식을 교육받은 사람들과 의학계 종사자들조차도 상당수가 마음과 뇌는 별개의 존재라는 이원론적 입장을 고수한다(Demertzi 등, 2009). 즉, 일원론은 반직관적이고, 이원론은 직관적이다.

마음에 대한 추론과 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Dennett(1989; 1996)은 위에서 언급한 성인과 어린 아이들의 이원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사고가 인간이 다른 대상들에 대해 지향적 태도(intentional stance)를 갖도록 진화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지향적 태도란 상대방을 세계에 대한 일정한 믿음(belief)과 욕망(desire)을 갖고 있고, 그 믿음과 욕망에 근거해 합리적 행동(rational behavior)을 하는 행위자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심리학자들은 지향적 태도와 같은 의미의 개념으로 마음이론(theory of mi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즉 어떤 사람이 지향적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곧 마음이론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Frith & Frith, 2005). 인간은 지향적 태도, 즉 마음이론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그 대상이 살아있는 인간이나 동물이 아닐지라도 마음을 소유한 행위자로 인식하거나 대하기도 한다(Dennett, 1996; Scholl & Tremoulet, 2000). 지향적 태도의 발현을 통해 아동은 목적론적이고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며, 이러한 생애 초기의 관념은 발달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원론적 실체 관념과 종교적 관념으로 확장된다. 즉, 마음이론의 능력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이원론적인 종교 관념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Bloom, 2008).

Bering(2006)은 마음이론의 과도한 작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심리적 비존재를 상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제안하였다. 이 상상 제약 가설(simulation constraint hypothesis)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어떤 의도를 가진 행위자가 있다고 믿게 된다. 또한 Bering(2002)은 죽은 사람의 생리적, 지각적, 감정적, 동기적, 인식적 능력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사망한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거나 말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응답했으나, 죽음 이후에도 욕망이나 감정은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죽음 이후에 소멸되는 신체생리적 능력과 달리, 심리적 능력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이원론적인 믿음을 보여준다.

죽음 이후에도 마음이 지속된다는 이원론적 태도를 취할 때, 죽은 자의 마음은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정상적 상태의 마음은 아니지만, 신체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공간을 초월한 비물질적인 존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Gray, Knickman과 Wegner(2011)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죽은 사

람,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그리고 정상인의 마음 능력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있다", "과거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등의 심리적 속성에 대해, 죽은 사람이 일반인보다는 낮지만,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죽은 상태의 인물이 식물인간 환자보다 더 좋고(better) 더 가치 있는(more valuable) 상태에 있다고 간주하였다. 이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마음은 신체에 갇힌 존재로 간주되는 반면, 죽은 사람의 마음은 신체에서 벗어난 마음(disembodied mind)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물음: 시공간을 초월하는 죽은 사람의 마음

한편, 죽은 자의 마음이 신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시공간을 초월한 비물리적인 실체로서 받아들여진다면, 죽은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한계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므로, 시공간적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일반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체에 기반한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은 세상의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 세상에 대한 틀린 믿음(false belief)을 가지게 된다. 반면, 죽은 사람의 마음이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비물질적 존재라(고 간주된다)면, 죽은 사람은 초월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통해 변화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세상에 대한 틀린 믿음을 갖지 않을 것이다. 즉, 마음의 영속성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의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능력 면에서는 죽은 사람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우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참가자들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고 생존, 사망, 또는 뇌사 상태에 놓인 인물의 "정보 업데이트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죽은 사람의 초월적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참가자들의 믿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Gray 등(2011)이 측정했던 인물의 "일반적 정신능력"과 참가자의 종교적 관념을 함께 측정하여, 이 두 변인과 죽은 사람의 정보 업데이트 능력에 대한 믿음 간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죽은 사람과 식물인간 환자의 마음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차이를 확인한 Gray 등(2011)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죽은 사람과 정상인의 마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대한 통제조건으로는, 오해나 혼동의 가능성이 높은 개념인 식물인간 대신, 일반인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뇌사 상태의 환자를 채택하였다.

방 법

참가자

20대 대학생 19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평균 연령은 21.37세(Range = 18-27, SD = 1.54)였다. 모든 참가자는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가에 동의하였으며, 설문을 종료한 후 1000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받았다.

자극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Gray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새로운 이야기와 등장 인물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시나리오의 등장인물인 민수와 영희는 부부이다. 영희가 근무하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된다. 이 뉴스 속보를 접한 민수는 차를 몰고 화재발생 장소로 급히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 후송된다. 한편, 그 시각에 영희는 화재현장에서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뉴스가 새로 보도된다. 민수는 영희가 생존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영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접하지 못한 상태이다. 교통사고 이후 민수의 상태에 따라 세 조건의 시나리오(생존, 사망, 또는 뇌사)가 구성되었고, 각 참가자는 이 중 하나의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생존 조건의 시나리오는, 민수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신적 능력을 온전히 회복한 상태로 마무리된다. 사망 조건과 뇌사 조건의 시나리오는 각각 같은 시간대에 민수가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진 채로 종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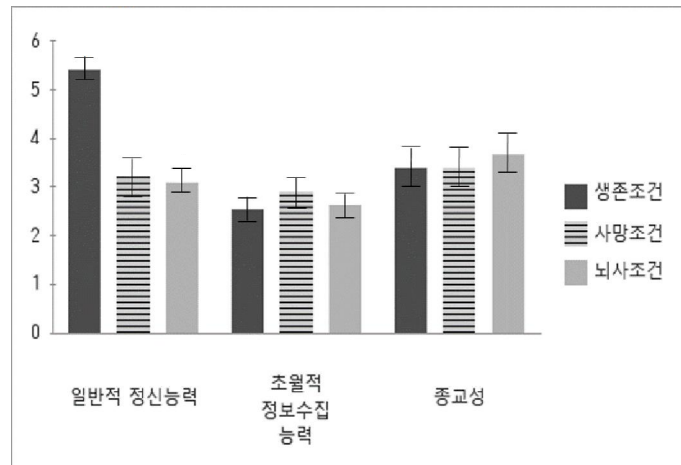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시나리오를 읽은 뒤, 민수가 현재 어떤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민수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정서), "주변 환경을 자각할 수 있는지"(지각), "과거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는지"(기억),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지"(판단), 그리고 "영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지"(새 정보 업데이트)를 묻는 5개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앞의 네 문항은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공(민수)이 현재 갖고 있는 정신능력 일반(mind capacity)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문항이며, 마지막 문항은 주인공이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여 세상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이었다.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참가자가 갖고 있는 종교적 믿음 수준을 확인하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이 문항들은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어떠한 형태나 방식이든 간에)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죽음 이후에도 마음(혹은 영혼)은 지속된다."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

참가자들이 주어진 시나리오를 성실히 읽고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두 주인공인 민수와 영희가 현재 각각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 혹은 “뇌사상태에 빠졌는지” 응답하도록 했다. 참가자가 읽은 시나리오가 생존 시나리오일 경우, “민수는 살아있다”는 응답이 올바른 반응이었고, 마찬가지로 사망 시나리오의 경우 “사망했다”, 뇌사 시나리오의 경우 “뇌사 상태이다”는 응답이 옳은 반응이었다. 또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영희는 최종적으로 무사히 구조 되었으므로, 영희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제나 “살아있다”는 반응이 옳은 반응이었다. 이 두 문항 중 하나라도 오답 반응을 한 참가자 11명을 제외한 총 179명(생존조건 58명, 사망조건 58명, 뇌사조건 63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생존, 사망, 뇌사상태 주인공의 정신능력에 대한 네 문항에 대한 각 참가자의 평정값 평균을 산출하여, '주인공'의 일반 정신능력에 대한 참가자 태도 지표(이하 일반적 정신능력 지표)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0.868$). 마찬가지로 참가자의 종교적 믿음을 확인한 네 문항의 참가자 별 평균을 '참가자'의 종교적 태도 지표(이하 종교성 지표)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0.902$). 각 조건 간 종교성 지표(생존조건: $M = 3.38$, 사망조건: $M = 3.63$, 뇌사조건: $M = 3.66$)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림 1 오른쪽), $F(2, 176) = 0.467, p = 0.628, \eta_p^2 = 0.005$.



(그림 1) 시나리오 조건 별 주인공의 일반적 정신능력 지표,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평정값, 및 참가자의 종교성 지표 평균

결 과

인물의 일반적 정신능력에 대한 시나리오 조건별 인식 비교

주인공의 전반적 정신능력에 대한 평정치(일반적 정신능력 지표) 평균은 생존조건에서 5.41(SD = 0.89), 사망조건에서 3.20(SD = 1.56), 그리고 뇌사조건에서 3.07(SD = 1.25)이었다(그림 1 왼쪽).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 조건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F(2,176) = 62.606$, $p < 0.001$, $\eta_p^2 = 0.416$. Games-Howell 사후분석 결과, 생존 조건에서 다른 두 조건보다 일반적 정신능력 지표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나($p < 0.001$), 사망조건과 뇌사조건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863$). 이는 생존한 인물이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진 인물보다 더 높은 정신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망한 사람의 정신 능력에 대한 평정이 식물인간 상태 환자보다 높았던 Gray 등(2011)의 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망 조건과 뇌사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인물의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조건별 인식 비교

‘영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민수의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평정치는 사망조건($M = 2.90$, $SD = 1.69$)에서 생존조건($M = 2.53$, $SD = 1.35$)이나 뇌사조건 ($M = 2.26$, $SD = 1.57$)보다 높았으나, 일원분산분석 결과 이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2,176) = 0.875$, $p = 0.419$ (그림 1 중앙). 즉 본 연구의 가설과 달리, 참가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 인식 능력 면에서 죽은 상태의 인물이 다른 조건의 인물보다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일반적 정신능력,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응답자의 종교성 간 상관관계

시나리오 주인공의 일반적 정신능력 지표와 초월적 정보 수집능력 평정치, 그리고 참가자의 종교성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각 시나리오 조건별로 분석하였다(표 1). 분석결과, 사망조건과 뇌사조건에서는 일반적 정신능력과 초월적 능력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나(사망조건: $r = 0.503$, $p < 0.001$, 뇌사조건: $r = 0.375$, $p = 0.002$), 생존조건에서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r = 0.216$, $p = 0.103$). 즉, 사망하거나 뇌사 상태인 인물에 대해서는 일반적 정신능력을 높게 부여할수록 정보 업데이트 능력 역시 높게 평가하는 응답 경향성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가자의 종교성 지표와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평정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망조건에서는 응답자의 종교적 믿음 수준이 높을수록 주인공의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을 높게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r = 0.276$, $p = 0.036$), 다른 두 조건에서는 응답자의 종교성 지표와

〈표 1〉 시나리오 조건 별 주인공의 일반적 정신능력 지표,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평정값, 참가자의 종교성 지표 간 상관관계

	생존조건			사망조건			뇌사조건		
	일반적 정신 능력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종교성	일반적 정신 능력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종교성	일반적 정신 능력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종교성
일반적 정신 능력	1			1			1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216	1		.503***	1		.375*	1	
참가자 종교성	.168	.008	1	.084	.276*	1	.214	.169	1

*** p < .001, ** p < .01, * p < .05

주인공의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믿음 간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생존조건: r = 0.008, p = 0.950, 뇌사조건: r = 0.169, p = 0.184).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종교적 믿음 수준과 주인공의 일반적 정신능력 지표 간 상관관계는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생존조건: p = 0.208, 사망조건: p = 0.532, 뇌사조건: p = 0.092).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인식에 대한 일반적 정신능력과 응답자 종교성의 효과

일반적 정신능력 지표와 종교성 지표가 민수가 “영희의 생존 사실을 알 수도 있다”는 믿음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은 일반적 정신능력 지표와 참가자의 종교성 지표간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두 평정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분석 결과, 생존조건에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2 = 0.077$, $F(3,54) = 1.503$, $p = 0.224$, Durbin-Watson = 2.555. 반면, 사망조건에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였고, $R^2 = 0.313$, $F(3,54) = 8.199$, $p < 0.001$, Durbin-Watson = 1.902, 일반적 정신능력과 종교성 지표 모두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일반적 정신능력 지표: $\beta = 0.481$, $p < 0.001$; 종교성 지표: $\beta = 0.228$, $p = 0.050$). 뇌사조건의 회귀모형 또한 유의하였으나, $R^2 = 0.157$, $F(3,59) =$

〈표 2〉 시나리오 조건 별 일반적 정신능력 인식 정도와 참가자의 종교성이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p	VIF
생존조건		(상수)	2.580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일반적 정신능력	.254	.166	1.195	.237	1.132
		종교성	.028	.035	.250	.804	1.168
		일반적 정신능력 X 종교성	-.181	-.188	-1.321	.195	1.202
			(상수)	2.887			
사망조건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일반적 정신능력	.512	.481	4.252***	.000	1.008
		종교성	.224	.228	2.005*	.050	1.017
		일반적 정신능력 X 종교성	.041	.073	.645	.522	1.011
			(상수)	2.646			
뇌사조건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일반적 정신능력	.480	.381	2.994**	.004	1.133
		종교성	.099	.107	.868	.389	1.073
		일반적 정신능력 X 종교성	-.060	-.095	-.746	.459	1.130
			(상수)	2.646			

*** p < .001 , ** p < .01, * p < .05

3.659, p = 0.017, Durbin-Watson = 1.575, 일반적 정신능력만이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었고($\beta = 0.381$, p = 0.004), 종교성은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p = 0.389). 주인공의 일반적 정신능력 지표와 참가자 종교성 지표간 상호작용은, 사망조건과 뇌사조건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사망조건: $\beta = 0.041$, p = 0.522; 뇌사조건: $\beta = -0.60$, p = 0.459).

논 의

현대 신경과학의 주류 입장은 인간의 마음이 신체기관인 뇌 활동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뇌의 활동이 멈추면 마음의 작용도 함께 정지하게 된다는 심신 일원론을 지지한다. 그러나, 현대 과학의 세례를 받은 일반인의 상당수는 여전히 심신 일원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Riekkki, Lindeman, & Lipsanen, 2013). 특히,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 지속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Demertzi et al., 2009).

일반인이 갖고 있는 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원론적 태도는 그동안 심리학적 경험 연구보다는 철학적 논의의 주제였다. 또한, 이러한 관념을 다룬 몇몇 심리학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비정상적 의식 상태의 인물들(식물인간, 죽은 사람 등)에게 정상인의 마음 능력(mind capacity)을 얼마나 부여하는지(attribute)를 주로 다뤘었다(Gray et al., 2011; Gomes, Parrott & Shepherd, 2016). 본 연구에서는 죽은 사람의 마음영속성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은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보다 능력이 감소한, 제한된 마음(limited mind)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속성의 마음일 것이라는 가설 하에,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즉, 죽은 사람의 마음은 살아있는 정상인과 달리 현실의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는 초월적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인공이 사망하거나, 생존하거나, 뇌사 상태에 놓인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주인공의 정신능력에 대한 참가자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가설과 달리 주인공의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참가자들의 태도에서 시나리오 조건 간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 이원론적 인식이 낮은 20대 대학생 참가자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문화권에서 20대 대학생은 가장 개인주의적, 분석적이며, 심신 문제나 종교적 성향에 있어서도 가장 일원론, 무신론적인 태도가 높은 연령 계층(Sears, 1986; World Values Survey, 2010)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흥미롭게도 사망과 뇌사 조건에서는 시나리오 주인공의 일반적인 정신능력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도 높을 것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생존 조건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즉, 죽은 사람이나 뇌사 상태 환자는 정신 능력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대하기 힘든 초월적 정보수집의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의 소유자에게 기대되는 마음 능력은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기대되는 능력과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정신능력이 높더라도, 신체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시공간을 초월한 지각적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반면, 비물리적 존재로서 받아들여진 죽은 사람의 마음은 신체적 제약을 초월하여 시공간 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이 두 능력이 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연속선상의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죽은 사람에게 마음이 있음을 인정할 때,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가자의 종교적 믿음 또한, 사망한 사람의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교적 믿음 수준이 높은 참가자일지라도 죽은 사람에게 일반적인 정신능력을 높게 부여하지는 않으나, 그 인물의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은 높게 판단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종교적 믿음(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발현되는 이원론적 태도가 주로 사망한 대상에게, 초현실적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의 여러 종교에서 묘사하는 죽음 이후의 마음(영혼)은 비물리적 양상으로 인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Ma'súmián, 1995). 따라서 종교적 관점에서는 죽은 사람의 마음에 부여되는 초월적 정신능력이 정신능력 일반과 독립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정신능력 측면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낮은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확인하였지만, 사망한 사람과 뇌사상태 환자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주 관심사는 아니었지만, 사망한 사람의 정신 능력에 대한 평정이 식물인간 상태 환자보다 높았던 선행 연구(Gray et al., 2011)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 불일치는 식물인간 대신 뇌사 상태를 비교 조건으로 채택한 실험 설계상의 차이, 또는 미국인과 한국인의 문화차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Gomes 등(2016)은 Gray 등(2011)의 연구에서보다 더 중립적인 시나리오와 질문을 사용하여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의 마음 능력을 식물인간 환자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Gray 등(2011)의 연구 결과는 식물인간 시나리오의 묘사 수준과 질문문항의 특성에서 기인한 반응 편향일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자면, 실제 일반인들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보다 죽은 사람의 마음 능력을 더 높게 판단하는지는 불명확하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죽은 사람의 마음이 비물리적 속성을 가진다는 일반인들의 믿음을 심리학적 방법론을 통해 살펴본 보기 드문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연구 참가자가 모두 20대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교육수준과 연령대의 집단들에 대해 일반화할 수 없는, 제한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Musolino(2015)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의 80%가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들 중 73%가 영혼이 사후에도 지속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권과 연령대의 집단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용 면에서도, 본 연구는 죽은 사람의 비물질적 마음의 속성으로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생존 사실을 알 수 있는" 능력만을 다루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마음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속성들을 다룬다면, 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더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의 이원론적 태도 역시 하나의 변인으로 다뤄진다면, 일반인의 이원론적 가치관과 죽은 사람의 초월적 능력

을 지각하는 경향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1) 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인식에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2) 적어도 죽은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은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과 달리 물리적인 제약의 초월하는 능력의 마음임을 시사한다. 인간은 동류 집단을 넘어서 다른 동물과 무생물, 인공물에게도 행위자성(agency)과 마음을 부여(attribute)하는 존재이다. 일반인이 갖고 있는 죽은 사람의 마음이론(theory of mind)을 이해하는 것은 마음지각(mind perception; Gray & Wenger, 2016)의 대상에 관한 범위와 한계 조건을 밝히기 위해 의미 있는 기획일 것이다.

참고문헌

- Bering, J. M. (2002). Intuitive conceptions of dead agents' minds: The natural foundations of afterlife beliefs as phenomenological boundary.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2(4), 263-308.
- Bering, J. M. (2006). The folk psychology of soul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9(5), 453-456.
- Csibra, G., Bíró, S., Koós, O., & Gergely, G. (2003). One-year-old infants use teleological representations of actions productively. *Cognitive Science*, 27, 111-133.
- Demertzi, A., Liew, C., Ledoux, D., Bruno, M.-A., Sharpe, M., Laureys, S., et al. (2009). Dualism persists in the science of mind.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57, 1-9.
- Dennett, D. (1996). *Kinds of minds*. New York: Basic Books.
- Dennett, D. (1989). *The intentional stance*. MIT press.
- Frith, C., & Frith, U. (2005). Theory of mind. *Current Biology*, 15(17), R644-R645.
- Gomes, A., Parrott, M., & Shepherd, J. (2016). More dead than dead? Attributing mentality to vegetative state patients. *Philosophical Psychology*, 29(1), 84-95.
- Gray, K., Anne Knickman, T., & Wegner, D. M. (2011). More dead than dead: Perceptions of persons in the persistent vegetative state. *Cognition*, 121(2), 275-280.
- Hamlin JK, Wynn K, & Bloom P. (2007). Social evaluation by preverbal infants. *Nature*, 450, 557-559.
- Heflick, N. A., & Goldenberg, J. L. (2012). No atheists in foxholes: Arguments for (but not against) afterlife belief buffers mortality salience effects for atheis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1(2), 385-392.
- Kelemen, D. (2004). Are children "intuitive theists"? *Psychological Science*, 15(5), 295-301.
- Kuhlmeier, V. A., Bloom, P., & Wynn, K. (2004). Do 5-month-old infants see humans as material objects?. *Cognition*, 94(1), 95-103.
- Loughnan, S., Haslam, N., Murnane, T., Vaes, J., Reynolds, C., & Suitner, C. (2010). Objectification leads

- to depersonalization: The denial of mind and moral concern to objectified oth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5), 709-717.
- Ma'súmián, F. (1995). *Life after death: A study of the afterlife in world religions*. Kalimat Press.
- Musolino, J. (2015). *The soul fallacy*. Prometheus Books.
- Riekkí, T., Lindeman, M., & Lipsanen, J. (2013). Conceptions about the mind-body problem and their relations to afterlife beliefs, paranormal beliefs, religiosity, and ontological confusions. *Advances in cognitive psychology*, 9(3), 112.
- Sears, D. O. (1986). College sophomores in the laboratory: Influences of a narrow data base on social psychology's view of human n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515.
- Scholl, B.J., & Tremoulet, P. (2000). Perceptual causality and animacy.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4(8), 299-309.
- Vail, K. E. III., Rothschild, Z., Weise, D. R., Solomon, S., Pyszczynski, T., & Greenberg, J. (2010). A terror management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relig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4, 84-94.
- Waytz, A., Gray, K., Epley, N., & Wegner, D. M. (2010). Causes and consequences of mind percep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 14, 383-388.
- Wegner, D. M., & Gray, K. (2016). *The mind club: Who thinks, what feels, and why it matters*. Penguin.
- World Values Survey (2010-2014). Four wave WVS/EVVs official integrated database [Data file]. Retrieved from www.worldval-uessurvey.org

1차 원고 접수: 2018. 04. 02
1차 심사 완료: 2018. 05. 25
2차 원고 접수: 2018. 06. 18
2차 심사 완료: 2018. 06. 28
최종 게재 확정: 2018. 06. 28

(Abstract)

Theory of the Dead's Mind: Does the Mind of the Dead Transcend Time and Space?

Euisun Kim

Sung-Ho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Current neuroscience views the mind-body problem from the monistic perspective which claims that the human mind is the result of brain activity and that the mind shuts down when the brain does. However, a considerable number of lay people still believe in the existence of the soul and the afterlife, concepts that are hard to explain from the monistic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lay people think that the mind of the dead is capable of exceeding the physical constraints if they believe that such mind exists. After reading one of three vignettes which describes the state of the protagonist as alive, dead, or brain dead, the participants evaluated the protagonist's general mental capacity and transcendental ability to obtain new information. The participants rated that the dead protagonist had more 'transcendental ability to obtain new information' than the alive one if they evaluated high general mental capacity to the protagonist. In addition, unlike the alive condition, in the dead and the brain dead condition,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general mind capacity rating and the transcendental ability rating. The results suggest that lay people expect the mind of the alive and the dead to be different, as they believe the latter's general mind capacity connotes transcendental ability. We also found that the participants' religiosity affected their beliefs about the transcendental ability of dead person.

Key words : mind-body problem, mind-body dualism, mind perception, mind of the dead

부 록

생존조건 시나리오

민수와 영희는 부부이다. 민수는 “영희가 근무하는 건물에 화재가 나서,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뉴스 속보를 접했다. 충격에 빠진 민수는 화재 사고현장으로 가던 중, 급한 마음에 과속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반대쪽에서 오는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다. 구급차가 곧 도착하여 민수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뇌에 큰 충격을 받은 결과로 2시간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게 되었다. 다행히 민수는 지금 막 깨어나 정상적인 의식과 정신능력을 온전히 회복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의료진을 포함한 어떤 외부 정보와도 접촉하지 않은 채 혼자 병실에 누워 있다.

한편, “영희가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와는 달리, 민수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동안에 영희는 극적으로 구조되어 화재현장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사망조건 시나리오

민수와 영희는 부부이다. 민수는 “영희가 근무하는 건물에 화재가 나서,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뉴스 속보를 접했다. 충격에 빠진 민수는 사고현장으로 가던 중, 급한 마음에 과속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반대쪽에서 오는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다. 구급차가 곧 도착하여 민수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민수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민수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한편, “영희가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와는 달리, 민수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동안에 영희는 극적으로 구조되어 화재현장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뇌사조건 시나리오

민수와 영희는 부부이다. 민수는 “영희가 근무하는 건물에 화재가 나서,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뉴스 속보를 접했다. 충격에 빠진 민수는 사고현장으로 가던 중, 급한 마음에 과속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반대쪽에서 오는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다. 구급차가 곧 도착했으나, 민수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민수의 뇌는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결국 모든 뇌 기능이 정지하여 민수는 뇌사(brain death)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현재 민수의 모든 신체 장기는 자발적인 작동을 멈추었다. 민수는 인공호흡장치의 도움으로 심

장박동과 호흡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시 소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한편, “영희가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와는 달리, 민수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동안에 영희는 극적으로 구조되어 화재현장에서 무사히 빠져 나왔다.